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5.4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 (02-2100-2680)	담 당 자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83)
	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이 기 영 (02-3145-7290)		이 목 희 팀장 (02-3145-7320)

제 목 : 문화일보 5.4일자 「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…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문화일보는 5.4일자 “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…” 제하의 기사에서
- “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 대해 ‘확정되지’ 않은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, 정책협의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” 라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회계감리 및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업무로서,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예정안의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.25일 오전에 금융위에 알렸음
- ☐ 참고로, 同 件 관련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금융위원회는 예정된 감리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